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고	2018. 9. 11.(화) 조간	배포 2018. 9. 10.(월)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김재경 부국장(3145-8130), 윤지연 선임조사역(3145-8124) 이명규 팀장(3145-8521), 김흠 선임조사역(3145-8155)
------	---------	--

제 목 :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매일 116명, 10억원의 피해 발생
 - 금감원·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실시 등 적극 대응예정

1 피해 현황

-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18년 상반기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불입1)을 발표
-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함
 - * '18.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원으로 '17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을 200억원 초과
 -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1인 평균 8.6백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18년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은 26,851건으로 전년 동기간(21,012건) 대비 27.8%(5,839건↑) 증가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단위 : 억원, 명, 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상반기		증감(율)(B-A)
				상반기(A)	(B) 일 평균	
피 해 액	2,444	1,924	2,431	1,038	1,802	764 (73.7)
피해자수	32,764	27,487	30,919	13,433	21,006	7,573 (56.4)
피해건수	57,695	45,921	50,013	22,051	30,996	8,945 (40.6)
대포통장*	57,299	46,629	45,495	21,012	26,851	5,839 (27.8)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이하 같음)



2 대응방안

① 금감원·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실시

- (기간) '18.10.1 ~ 10.31.(잠정)
- (참여 기관) 금감원,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쏘 은행 및 희망 금융회사
- (내용) 캠페인 발족식 개최(금감원장 주관, 영업점 방문 포함), 영업점 대면 및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유의사항 집중 안내, 리플릿 배포 등
- (슬로건) “그놈 목소리 3Go!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p>(예시)</p>  <p>잠깐!</p>	<p>‘돈 보내라고?!’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이상한데?!’ 주저없이 전화끊고! ‘혹시 그놈?!’ 확인하고!</p>
---	--

②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 실시

- (기간) '18.9.7. ~ '19.2월(잠정)
- (참여 기관) 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 (내용)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 대상 연극 공연*, 예비사회 초년생 대상 맞춤형교육**, 일반시민 대상 캠페인 등(총 34회)

*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연극형식으로 흥미있게 전달

** 학자금 대출, 취업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범죄 연루의 심각성 교육

③ 상습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의 금융권 공유 강화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상습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명의인 정보(성명, 등록번호, 계좌개설 기관 등)를 금융권과 공유 강화

- 금융회사는 해당 명의인이 금융거래를 요청할 경우 심사에 활용

④ 고액현금 인출시 실시하는 현행 문진제도* 보완

* 5백만원 이상 현금 인출, 대출상담의 경우 '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

- 수표인출(현금과 합산하는 경우 포함) 등을 문진대상에 포함하고, 창구 송금시에도 고액인 경우 문진 실시

⑤ 보이스피싱 전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추진

- 민간회사와 협업하여 AI App*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 탐지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 상대방의 음성 또는 통화내용을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실시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알림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의심하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면 돈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

- **(전화끊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를 통해 직접 확인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

* (20·30대) 425억원, (40·50대) 996억원, (60대 이상) 350억원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7%이며,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

*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하여 수수료 또는 대출금을 편취

**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17년	상반기(A)	'18.상반기(B)	증감(율)(B-A)	
대출빙자형	피해액	1,808	740	1,274	533	(72.0)
	(비중)	(74.4)	(71.3)	(70.7)	(△0.6)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액	622	298	528	231	(77.6)
	(비중)	(25.6)	(28.7)	(29.3)	(0.6)	
합 계		2,431	1,038	1,802	764	(73.6)

가. 정부기관 등 사칭형의 특징

□ 여성의 피해가 크며, 특히 고령층 피해 증가

- (성별) 여성의 피해금액(363억원)은 남성(152억원)의 2.4배
- (연령별)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간(35억원) 대비 4.7배 상승(연령대별 비중은 19.1%p 상승)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7.상반기			'18.상반기		
	남	여	계	남	여	계
20·30대	24 (8.4)	159 (56.1)	183 (64.5)	26 (5.0)	175 (34.0)	201 (39.0)
40·50대	31 (10.8)	35 (12.2)	65 (23.0)	25 (4.8)	126 (24.5)	151 (29.3)
60대 이상	25 (8.8)	10 (3.7)	35 (12.5)	101 (19.7)	61 (11.9)	163 (31.6)
합 계	79 (28.0)	204 (72.0)	284 (100.0)	152 (29.5)	363 (70.5)	514 (100.0)

* 법인 제외, ()는 전체 대비 비중

나. 대출방자형의 특징

□ 남성 및 40·50대의 피해가 큼

- (성별) 남성의 피해 비중(59.1%)이 여성(40.9%) 보다 18.2%p 큼
- (연령별) 40·50대의 피해금액이 가장 큰 비중(67.2%) 차지

대출방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7.상반기			'18.상반기			
	남	여	계	남	여	계	
피해액	20·30대	89 (12.1)	77 (10.5)	166 (22.6)	121 (9.7)	103 (8.2)	224 (17.8)
	40·50대	270 (36.7)	205 (27.8)	475 (64.5)	494 (39.3)	351 (27.9)	845 (67.2)
	60대 이상	60 (8.2)	34 (4.6)	94 (12.8)	128 (10.2)	59 (4.7)	188 (14.9)
	합계	420 (57.1)	316 (42.9)	735 (100.0)	744 (59.1)	514 (40.9)	1,258 (100.0)

* 법인 제외, ()는 전체 대비 비중

다. 대포통장* 발생 특징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동기간(6,287건) 대비 54.5% 증가

금융권역별 대포통장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분	'16년	'17년	상반기(A)		'18.상반기(B)		증감(율)(B-A)
			계좌수	(비중)	계좌수	(비중)	
은행	33,672	31,014	14,725	70.1	17,135	63.8	2,410 (16.4)
제2금융권	12,954	14,481	6,287	29.9	9,716	36.2	3,429 (54.5)
상호금융	6,907	7,171	3,002	47.7	4,793	49.3	1,791 (59.7)
새마을금고	3,176	4,010	1,703	27.1	3,054	31.4	1,351 (79.3)
우체국	2,759	3,172	1,532	24.4	1,765	18.2	233 (15.2)
증권 등	112	128	50	0.8	104	1.1	54 (108.0)
합계	46,626	45,495	21,012	100.0	26,851	100.0	5,839 (27.8)

[1]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 ① '18.6월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씨(40대, 여)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 **명의**가 쇼핑몰사기에 **도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된 상태**라고 기망
- ② 이후 **검사를** 연결시켜주겠다고 하며 다른 사기범을 바꾼 후, 이메일로 **가짜 사건 공문**과 **가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 라면서 **URL주소**를 보내 **다운로드**하도록 함
- ③ 사기범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확인하라고 하였고, A씨가 **1332로 전화**하자 **악성 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A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
- ④ 이후 사기범은 A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계좌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금 0천만원을 **금융감독원 팀장 계좌**에 입금하면 **조사 후 바로 환급**된다고 속였으며, A씨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자 이를 편취

[2] 저금리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 요구

- ① '18.5월 사기범은 **O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씨(50대, 남)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
- ② 사기범은 B씨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3%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
- ③ 이에 B씨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0천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하여 잠적